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5일 월요일 음 6월 13일 (5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0~22℃로 나타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27℃로 예상된다. 오전 중에는 불쾌지수가 높음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5:35 / 해짐 19:45	달뜸 18:29 / 달짐 03:54
물때	만조 09:21 / 22:40	간조 04:21 / 16:02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2/27℃
모레	흐리고 비	23/27℃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뉴욕 대정전’ 42주년에 맨해튼 정전사태

타임스스퀘어도 피해 발생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저녁 변압기 화재에 따른 정전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압기 화재는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 64번가와 웨스트 엔드 애버뉴에서 시작됐다. 이후 오후 8시께부터 인근 미드타운의 록펠러센터 빌딩이 상당 부분 정전됐고, 고급 레지던스와 상가가 밀집한 어퍼 웨스트사이드 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지하철 역사가 암흑천지로 변한 가운데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멈춰선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시민들의 구조 신고가 쇄도했다.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일부 전광판도 정전으로 불이 꺼졌고, 브로드웨이에선 공연이 취소되거나 입장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전 발생 후 타임스스퀘어 앞 거리 풍경.

소방당국은 정전으로 약 4만4000여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번 정전사태는 자정께부터 해소됐으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력공급이 완전히 정상화 됐다”면서 “정전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1977년 뉴욕에서 발생한 대정전 사태의 4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도심 내 광범위한 약탈과 방화로 이어진 당시 대정전으로 총 3억1000만 달러(약 3655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현 영 종
편집부국장

‘감귤 미래 50년 과제’ 제대로 추진을

서슬 퍼렇던 1980년대 중반. 수많은 학생과 농업인들이 제주시 중앙로까지 진출하면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도로 한 복판에 감귤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UR(우루과이 라운드) 철폐’를 호소했다.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UR의 타결로 일본 감귤이 수입되면 제주산 감귤은 푸대접 신세’라는 절박한 심정에서다. 일부에선 “품질이 좋은 일본산 감귤이 백화점·고급 음식점을 점령하고, 제주산 감귤은 시장이나 가두 행상 등에서나 팔릴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시일이 흐르며 파고는 더욱 거세졌다. 2004년 한-칠레 FTA,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다. 오렌지·체리 등 수입이 늘면서 감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00~2018년 사이 오렌지가 수입되는 기간에 국내산 과일 가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감귤·딸기·방울토마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렌지·만다린 감귤의 수입관세가 완전 감축되면 감귤 및 연관산업 직접 피해액이 연간 678억~1998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농업부문 개방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농업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1992~2001년 사이 10년간 농어촌구조개선에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농정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됐다. 농업구조개선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42조원 투·융자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1998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또한 특단의 대책을 선보였다. 해발 200m 이상 감귤농장 2500ha를 연차적으로 폐원하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감귤농장의 작업로 개설·수형 조절·과원정비 등 생산기반 정비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과수원 규모를 농가당 0.7ha에서 1~2ha로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며칠 전 제주도의 ‘제주감귤산업 미래 50년’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재 대주제 5개를 확정하고 중장기 과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5개 대주제는 ▷감귤농업인 고령화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품목별 재배구조 제시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지원 전환 ▷감귤 조례 전환 등이다. 소그룹별 중복 과제를 통·폐합하면 최종 과제는 기존 51개에서 47~48개로 조정될 전망이다. 감귤산업정책자문위 회의와 함께 도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관광과 더불어 제주경제를 유지하는 양대 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발전은 고사하고 위기감만 높아지고 있다. ‘감귤 미래 50년 과제’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적정생산·품질관리, 품종 갱신·확대, 연중 생산체제 구축,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행정·농정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뚝심 있는 정책의지가 이어져야 한다. 수장이 바뀐다고, 반발이 드세다고 계획을 흔들어서는 감귤 산업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행정·농정당국의 굳건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열린마당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시카고 공연

김 슬 이
제주대학교 3학년

지난 6월 22일 ‘2019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가 미국 시카고 노스쇼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제주문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1장 ‘기원의 울림’, 제2장 ‘상생의 땅, 제주’로 구성됐다. 제주교민 2세로 이루어진 글로벌 풍물팀 인스티튜드가 시작을 알린 이날 공연은 칠머리당 영등굿을 모티브로 창작한 가락춤과 제주민속춤인 해녀춤과 푸는체춤, 조창운 민속보존회장님의 제주민요로 이어지며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김영철 선생님과 회원들의 공연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다. 공연 후반부 결혼식 장면에서는 제주교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결혼식을 올리며 객석 반응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특히 물허벅 춤 중반부터는 박자에 맞춰 박수가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 항아리에 물 비우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교민들의 성원 속에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는 뿌듯함과 감동이 있었지만, 한 번밖에 공연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교민들과 만남의 자리에서도 1회 공연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규모인데다 화려하고 빠른 무대는 처음이라 하신 분도 계셨고, 달라스에서 3시간 가량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은 달라스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우리 공연단과 스태프 43명 모두가 하나 되어 역할을 다한 자리였다. 안무 지도 고춘식 선생님, 예총 부재호 회장님과 예총 직원 선생님들,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2019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공연을 통해 제주의 문화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긴장감과 벅찬 설렘으로 잊지 못 할 시간이었다.

숨겨진 쓰레기, 결국은 돌아올 쓰레기

강 아 령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지난 달 한라산에서 발견된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화제를 몰고 왔었다. 성판악 입구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 나온 쓰레기들은 40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00포대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각종 포장지와 빈병, 플라스틱 등 버린지 너무 오래돼 불법투기자가 누구인지도 찾지 못한 쓰레기들.

중산간 지역 및 마을 깊숙한 곳, 또는 하천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쓰레기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제주도정은 2006년부터 클린하우스를 도입하여 도내 전역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도 관내 47개소의 클린하우스와 1개의 재활용도움센터, 2개의 중형재활용도움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산간 마을 수풀지역이나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한다.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들은 일명 ‘방치폐기물’이라 하여 해마다 행정예산을 투입하여 수거 및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데 행정에서 이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 혜택으로 쓰일 예산이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는 계량장비에 따로 모아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하기, 쓰레기는 꼭 클린하우스에 배출하기. 이 4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회질서다. 우리가 잠시 편하자고 숨겨 버린 쓰레기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든 돌아와 미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먼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늘 · 양파 · 양배추 농가에게 알립니다
➜ 하하농법이 해결이다!!

마 늘
○ 금년도 마늘 평당 10kg 생산농가가 있어 화제! → 대정읍 하모1리
김OO씨는 2,400평에 하하농법으로 재배한 마늘이 24,000kg 생산되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 밑거름 : 이노페스 + 복비(21-17-17)
○ 추 비 : 희토락F + 복비
○ 비 대 : 희토락F
※ 이노페스를 사용시 유기질 비료 또는 퇴비, 토양개량제(소석회 또는 생석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 · 양배추
○ 묘종을 정식전에 하하농법인 브이(V)패스로 침지 또는 침전 후 정식 → 정식후 뿌리가 내리면 브이(V)패스로 엽면시비 해준다.
○ 브이(V)패스 : 500㎖ 1병 12.5말로 희석해준다 →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다. (양배추 뿌리혹병, 마늘 잎지 썩음병, 감자 시들음병 등등..)
※ 대정읍 신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올 농사도 하하농법으로 하하 웃는 농민과 함께하는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 · P 010-2633-5349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누수탐지 · 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